

간호학사 과정 3학년 학생들의 노인과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

김 정 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를 맞게 된 이후, 인구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어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3%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어 고령사회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6). 이러한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는 보건과 복지 측면에서의 서비스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데, 특히 노인인구의 건강문제로 인한 보건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다. 보건서비스 중에서도 노인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치매노인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어(Byun et al., 1997) 앞으로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치매노인의 수도 늘어날 것이므로 치매노인을 위한 보건서비스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 현상에 따른 보건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따라 간호학생들이 다양한 실습현장에서 간호대상자로서 노인과 치매노인들을 만나는 기회도 증가할 것이다. 특히,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에서 전문요양원은 치매노인이나 뇌졸중을 경험한 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시설로서 그 수적 증가에 따라 간호학생이나 임상 간호사로서 치매노인을 간호할 기회는 늘어나고 있다. 한편, 과거 연구에서 학생들의 노인간호 영역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Kim, 1981) 앞으로 더욱 증가할

노인간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태도의 영향에 관련하여 간호학 전공 4학년 학생들에게서 노인에 대한 태도는 노인간호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선호도와 관련 있음이 보고되었고(Gomez, Young, & Gomez, 1991; Robb, 1979), 치매환자들을 돌보는 시설의 간호직원들의 치매환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낮은 소진 점수 간의 관계(Åström, Nilsson, Norberg, Sandman, & Winblad, 1991), 치료사와 간호직원들의 부정적 태도와 낮은 직업만족도간의 관계가 보고된 바 있다(Brodaty, Draper, & Low, 2003). 더욱이 치매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의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진단과 치료, 지지,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주며(Benbow & Reynolds, 2000), 학생을 포함하여 노인들을 돌보는 다양한 실무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치매노인들이 받게 되는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Kane, 2002).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제공자들의 태도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전달되어 노인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에도 영향을 준다(Kosberg, 1983).

서비스제공자들의 대상자에 대한 태도의 영향을 고려할 때,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들의 긍정적 태도는 필수적이며 교육기관은 학생들이 전문가적 지식과 기술뿐 아니라 적절한 태도를 갖추도록 할 의무가 있음이 지적된 것은(Kosberg, 1983) 당연하다. 따라서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junghee@inha.ac.kr).

투고일: 2007년 10월 22일 심사완료일: 2007년 11월 30일

노인과 치매노인들을 간호하는 학생들의 간호대상자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것은 이들 대상자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교육적 경험을 조직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졸업 후 지역사회 영역에서 노인간호에 대한 근무 선호도를 높이고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학 실습을 시작하는 시점에 있는 간호학사 과정 3학년 학생들의 노인과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를 파악함과 더불어 두 노인집단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고 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각 노인집단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간호학생들의 자가응답 설문자료를 통해 노인과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고 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태도를 분석하는 서술적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서울과 인천에 위치한, 편의표출된 두 개의 4년제 간호교육기관에 재학중인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기관에서 설문에 응답한 학생수는 68명과 53명으로 응답률은 100%였다. 한편, 설문지의 일부분에 응답을 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하여 120명(99.2%)을 실제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두 기관 모두 노인간호학은 각각 3, 4학년에 개설되어 있어 연구대상 학생들은 자료수집 당시에 노인간호학을 수강하지 않은 상태였다. 연령은 19-25세의 범위였으며 평균은 21.12세였다. 종교는 30%(36명)가 없었으며 기독교(35.8%)와 천주교(26.7%)는 62.5%였고 불교는 7.5%(9명)에 불과하였다. 성장시 거주지역은 농어촌이 7.6%에 지나지 않았고, 대도시는 71.2%, 중소도시는 21.2%이었다. 과거나 현재 노인과 동거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51.7%(62명)로 약 반을 차지하였다. 이들 중 동거한 노인과 좋은 관계(35.5%) 또는 매우 좋은 관계(22.6%)를 보고한 경우는 58.1%였으며 4.8%

는 관계가 나쁘다고 하였다. 노인이나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5%) 또는 어느 정도(47.9%) 있는 경우는 52.9%였으며, 관심이 없는 경우는 7.6%이었다. 노인들과의 대화정도를 보면 61.7%가 자주(19.2%) 또는 가끔(42.5%) 대화하였으며 6.7%는 대화가 전혀 없었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20)

Variable	n (%)
Age(years)	
Mean (SD)	21.12 (1.22)
Range	19 - 25
Religion	
None	36 (30.0)
Buddhism	9 (7.5)
Protestant	43 (35.8)
Catholic	32 (26.7)
Residence area when growing up	
Large city	84 (71.2)
Mid/small city	25 (21.2)
Rural area	9 (7.6)
Experience living with elders	
Yes	62 (51.7)
No	58 (48.3)
Intimacy with elders	
Bad	3 (4.8)
Moderate	23 (37.1)
Good	22 (35.5)
Very good	14 (22.6)
Interest in elders/issues	
Very much	6 (5.0)
Moderate	57 (47.9)
Little	47 (39.5)
Very little	8 (6.7)
Not at all	1 (.9)
Communication with elders	
Frequent	23 (19.2)
Occasional	51 (42.5)
Rare	38 (31.6)
Never	8 (6.7)

Note. Excluded missing values.

3. 연구 도구

태도측정을 위해 1986년 Takeda 등(1991)이 일본, 대만, 한국 학생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개발한 50쌍의 대응형용사를 Kim, Son과 Algase(2004)가 우리나라 전국 간호대학생 표본에 적용하여 보고한 3개 차원으로 이

투어진 37쌍의 대응 형용사를 사용하였다. 세 가지 차원은 활력성(vitality), 관용성(generosity), 유연성(flexibility)이다. 활력성은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소극적/적극적, 내향적/외향적, 회색/장미색, 바쁜/한가한, 능동적/수동적, 어두운/밝은, 약한/강한, 매력있는/매력없는, 의존적/자립적, 커다란/조그마한, 생산적/비생산적, 행복한/불행한, 굳센/약한, 동적/정적, 고립/연대, 느린/빠른, 눈에 띄는/눈에 띄지 않는, 유능한/무능한 항목을 포함하였다. 관용성은 딱딱한/거치른, 불안정/안정, 정돈된/허트러진, 동조/반발, 현명한/어리석은, 탐욕스러운/욕심없는, 좁은/넓은, 훌륭한/빈약한, 저속한/고상한, 차가운/따뜻한, 온화한/엄격한, 소원한/친밀한, 만족/불만, 개방적/폐쇄적의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유연성은 진보적/보수적, 객관적/주관적, 고집센/말잘듣는, 감정적/이성적, 개방적/폐쇄적의 5개 항목을 포함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일반적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은 “다음은 노인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였으며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은 “노인” 대신 “치매가 있는 노인”으로 하였다. 이외에도 학생의 특성으로서 종교, 성장지역, 노인과의 동거경험과 대화기회,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도 등에 관한 내용이 설문지에 포함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활력성, 관용성, 유연성의 Cronbach's alpha 값이 간호대학생들의 일반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했을 때 각각 .88, .86, .67로 보고된 바 있으며(Kim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각 대응 차원에 대해 .86, .85, .67로 나타나 매우 유사하였다. 한편, 간호대학생의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 측정에서는 활력성, 관용성, 유연성이 각각 .73, .77, .81로 보고된 바 있으나(Kim, 2006) 본 연구에서는 .89, .83, .78로 활력성과 관용성의 신뢰도가 Kim(2006)의 연구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각 항목은 7점 어의구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로 평가되었다. 척도의 양 극단인 1점과 7점에 가까운 점수는 각각 부정 또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며 중간인 4점은 중립적인 태도로서, 중립지점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이 척도에서는 태도의 방향과 강도를 모두 검토할 수 있다.

4.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연구대상인 두 개의 4년제 간호교육기관의 3학년 학생들에게 2006년도 임상실습을 시작하기 전, 학기 첫째 주인 2월 27일부터 3월 3일 사이에, 연구의 목적과 자료 수집을 설명하는 연구동의서를 배부하여, 동의하는 학생들은 서명 후에 준비된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8.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항목은 긍정적 태도에 높은 점수를 할당하도록 일부 항목의 점수를 역산하여 각 차원의 점수를 산출하였다. 각 차원을 나타내는 항목에 응답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나 이러한 경우 응답한 항목만을 이용하여 평균치를 산출하였다. 기술통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태도 차원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적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태도 점수의 차이 분석에는 paired t-test, ANOVA, Scheffé test를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노인과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

활력성 차원에서 일반노인과 치매노인 대상 평균은 각각 3.36점과 3.10점으로서 중립에서 부정적 방향의 '약간' 사이에 있으며 일반노인보다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t=3.52, p=.001$). 관용성의 평균점수는 일반노인 대상에서는 4.31로 중립에서 긍정적 방향의 '약간' 사이에 위치하였으며, 치매노인 대상에서는 3.05점으로 부정적 방향의 약간에 도달하였고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였다($t=14.51, p<.001$). 유연성의 평균점수는 일반노인(2.86점), 치매노인 대상(2.58점)에서 모두 부정적 방향의 '약간'과 '어느 정도' 사이에 위치하여 치매노인에서 더욱

<Table 2> Dimensional Means Toward General Elders and Elders with Dementia

	General elders	Elders with dementia	Difference	t	p
	Mean (SD)	Mean (SD)	Mean (SD)		
Vitality	3.36 (.65)	3.10 (.86)	.12 (.82)	3.52	.001
Generosity	4.31 (.74)	3.05 (.66)	1.08 (.95)	14.51	<.001
Flexibility	2.86 (.78)	2.58 (.97)	.14 (.77)	3.98	<.001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t=3.98, p<.001$)〈Table 2〉.

세 차원간의 상관분석 결과 〈Table 3〉, 일반노인 대상에서는 활력성이 관용성($r=.31, p=.001$), 유연성($r=.47,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관용성과 유연성간에는($r=.18, p=.048$)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치매노인 대상에서는 활력성이 관용성($r=.46, p<.001$), 유연성($r=.55, p<.001$)과 중등도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관용성과 유연성간에는($r=.66, p<.001$)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반노인과 치매노인에 대한 각 태도차원간의 상관성을 보면 활력성($r=.43, p<.001$)과 유연성은($r=.63, p<.001$) 중등도 이상 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관용성

($r=.10, p=.289$)은 상관성이 유의하지 않았다.

2. 대상자 특성에 따른 일반노인과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 분석

태도의 세 가지 차원을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활력성의 경우 종교의 유무와 성장지역, 과거나 현재 노인과의 동거 경험유무에 따른 일반노인과 치매노인 대상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동거한 노인과의 친밀성에 따른 활력성 평가의 차이는 치매노인 대상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일반노인 대상에서는 노인과의 사이가 매우 친밀하거나 친밀한 경우가 보통이거나 나쁜 경우보다 부정적 성향이 유의하게 낮았다($t=-2.26, p=.028$). 노인이나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에 따른 활력성의 차이는 치매노인 대상에서만 유의하였다($t=2.56, p=.012$). 노인이나 노인문제에 '매우' 또는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경우가 관심이 그저 그렇다, 그다지 없다, 전혀 없는 경우보다 활력성을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노인들과의 대화 정도에 따른 활력성 평가의 차이는 일반노인 대상에서만 유의하였는데($F=3.74, p=.027$),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대화를 자주하는 경우 부정적인 성향이 유의하게 낮았다〈Table 4〉.

관용성의 경우 성장지역, 과거나 현재 노인과의 동거

〈Table 3〉 Correlation Matrix of Attitudinal Dimensions

	Vitality		Generosity		Flexibility	
	r	p	r	p	r	p
Vitality	.43	<.001	.46	<.00	.55	<.001
Generosity	.31	.001	.10	.289	.66	<.001
Flexibility	.47	<.001	.18	.048	.63	<.001

Note. Coefficients below the diagonal are attitudes toward general elders. Coefficients above the diagonal are attitudes toward elders with dementia. Coefficients of attitudes toward general elders and elders with dementia are on the diagonal.

〈Table 4〉 Vitality of General Elders and Elders with Dementia by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General elders			Elders with dementia		
	Mean (SD)	t/F	p	Mean (SD)	t/F	p
Religion						
No	3.40 (.55)	.50	.615	3.01 (.75)	-.72	.473
Yes	3.34 (.69)			3.13 (.90)		
Residence area when growing up						
Large city	3.35 (.68)	.08	.936	3.05 (.85)	-.81	.419
Mid/small city, rural area	3.34 (.57)			3.19 (.88)		
Experience living with elders						
Yes	3.38 (.76)	.43	.672	3.14 (.91)	.60	.551
No	3.33 (.52)			3.05 (.80)		
Intimacy with elders						
Bad, moderate	3.13 (.74)	-2.26	.028	3.04 (.86)	-.75	.458
Good, very good	3.56 (.73)			3.21 (.94)		
Interest in elders/issues						
Little, very little, not at all	3.38 (.60)	.47	.639	3.30 (.79)	2.56	.012
Very much, moderate	3.32 (.69)			2.91 (.88)		
Communication with elders						
Rare, never (1)	3.18 (.56)	3.74	.027	3.16 (.88)	.34	.711
Occasional (2)	3.40 (.62)			3.09 (.83)		
Frequent (3)	3.61 (.81)			2.98 (.88)		

Note. Excluded missing values.

경험유무, 노인이나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도에 따른 차이는 일반노인과 치매노인 대상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5). 특히 치매노인에 대한 관용성은 대상자 특성별 분석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

반노인 대상 평가에서 종교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긍정적 성향이 유의하게 높았다($t=2.45, p=.016$). 과거나 현재 동거한 노인과의 친밀도에 따른 관용성의 차이는 노인과의 사이가 매우 친밀하거나 친밀한 경우는

〈Table 5〉 Generosity of General Elders and Elders with Dementia by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General elders			Elders with dementia		
	Mean (SD)	t/F	p	Mean (SD)	t/F	p
Religion						
Yes	4.56 (.63)	2.45	.016	3.07 (.68)	.22	.827
No	4.20 (.77)			3.04 (.66)		
Residence area when growing up						
Large city	4.24 (.75)	-1.18	.242	3.06 (.69)	.20	.846
Mid/small city, rural area	4.41 (.65)			3.03 (.60)		
Experience living with elders						
Yes	4.32 (.80)	.27	.785	3.02 (.65)	-.60	.550
No	4.29 (.69)			3.09 (.68)		
Intimacy with elders						
Bad, moderate	3.97 (.67)	-3.17	.002	2.96 (.66)	-.53	.598
Good, very good	4.58 (.79)			3.05 (.64)		
Interest in elders/Issues						
Little, very little, not at all	4.16 (.48)	-1.95	.055	3.17 (.66)	1.73	.086
Very much, moderate	4.40 (.87)			2.96 (.66)		
Communication with elders						
Rare, never (1)	4.18 (.65)	6.01	.003	3.01 (.63)	.37	.689
Occasional (2)	4.21 (.64)			(3)>(1),		
Frequent (3)	4.77 (.97)			(3)>(2)		

Note. Excluded missing values.

〈Table 6〉 Flexibility of General Elders and Elders with Dementia by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General elders			Elders with dementia		
	Mean (SD)	t/F	p	Mean (SD)	t/F	p
Religion						
Yes	2.88 (.72)	.18	.860	2.41 (.92)	-1.23	.220
No	2.85 (.81)			2.65 (.98)		
Residence area when growing up						
Large city	2.80 (.76)	-.88	.383	2.60 (.96)	.44	.664
Mid/small city, rural area	2.94 (.84)			2.51 (1.01)		
Experience living with elders						
Yes	2.87 (.81)	.14	.892	2.55 (.91)	-.29	.774
No	2.85 (.76)			2.60 (1.03)		
Intimacy with elders						
Bad, moderate	2.97 (.78)	.83	.408	2.63 (.80)	.59	.561
Good, very good	2.79 (.84)			2.49 (.10)		
Interest in elders/issues						
Little, very little, not at all	2.97 (.71)	1.63	.106	2.81 (.85)	2.46	.015
Very much, moderate	2.74 (.83)			2.38 (1.03)		
Communication with elders						
Rare, never	2.70 (.80)	1.68	.191	2.60 (.96)	.26	.772
Occasional	2.91 (.73)			2.51 (.94)		
Frequent	3.04 (.84)			2.68 (1.07)		

Note. Excluded missing values.

관용성 평가가 긍정성향을 보였으나 친밀도가 보통이거나 나쁜 경우에는 거의 중립적 태도를 보였다($t=-3.17$, $p=.002$). 노인들과 대화를 자주하는 경우가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와 가끔 하는 경우보다 일반노인에 대한 관용성의 긍정성향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F=6.01$, $p=.003$).

유연성의 경우 <Table 6> 노인이나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도에서만 치매노인 대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기타 대상자의 특성별 유연성의 차이는 일반노인과 치매노인 대상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노인이나 노인문제에 매우 또는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경우가 관심이 그저 그렇다, 그다지 없다, 전혀 없는 경우보다 유연성을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t=2.46$, $p=.015$).

IV. 논 의

일반노인과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세 가지 이미지 차원의 상관관계수가 다른 양상을 보인 것과 학생들의 특성별 노인에 대한 이미지 평가가 각 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에서 채택한 도구에 내포된 세 가지 차원인 활력성, 관용성, 유연성이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에서 각각 구별되는 독특한 차원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들 세 차원은 기존의 연구에서 차원별 항목을 고려하여 명명되었는데, 국어사전을 참조하면 “관용”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유연”은 부드럽고 연한 것, “활력”은 살아 움직이는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1999).

일반노인의 관용성이 중립적 태도에서 약간 긍정적 방향으로 평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노인과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에서 모두 부정적 성향을 보였으며, 특히 치매노인이 일반노인보다 더욱 점수가 낮아 학생들의 부정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일반노인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간호대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연구한 Kim 등(2004)과 Kim(2006)의 보고와 유사한 결과이다. 한편, 서울지역의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Seo & Kim, 1999)와 전북지역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Cha, 1980)에서도 부정적 성향이 보고 되어 본 연구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간호학 전공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성향인 것으로 추측된다.

치매노인이 일반노인보다 부정적으로 평가된 이미지는

Kim(2006)의 연구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였으며, 요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Kahana 등(1996)도 노인들에 대한 긍정성향의 평가가 알츠하이머병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건강한 노인집단, 신체적 질병을 가진 노인집단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보다 낮았음을 보고하였다. 치매노인에 대한 상대적인 부정적 평가는 노인이라는 특성에 더하여 치매라는 질병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Benbow와 Reynolds(2000)는 알츠하이머병을 가진 노인들은 정신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갖는 “이중적 편견”(double stigma)에 비교하여 인지기능 손상으로 인하여 “삼중의 위험”(triple jeopardy)을 갖는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Jolley와 Benbow(2000)는 암과 AIDS같은 질병처럼 알츠하이머병은 “가장 허약하고, 품위를 떨어뜨리며 절망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제시됨으로써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는 이러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이런 질병에 걸리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부가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일반노인보다 치매노인에 대해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Kim(2006)은 학생들이 치매노인들과의 직접적인 경험을 하기 이전에 대중매체에서 치매의 전형적인 증상을 극화시켜 보여주는 것에 노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였다.

한편, 위에서 논의한 간호학생들의 일반노인보다 치매노인에 대한 더욱 부정적 태도는 Kim(2006)이 언급하였듯이 설문지의 방식과도 관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Kim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 설문지는 일반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먼저 질문하고 바로 이어서 치매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질문하는 방식을 취했으므로 ‘치매’라는 특성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가능성은 Wingard, Heath와 Himelstein(1982)의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는데 젊은이에 비해 노인에 대해 비교 평가를 한 성인들이 노인만 평가한 성인들보다 더욱 극단적인 부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의 차이가 설문지의 질문순서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추후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일반노인, 치매노인 모두에서 세 가지 차원 중 유연성 차원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된 것은 같은 도구를 간호대학생들에게 사용한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Kim et al., 2004; Kim, 2006). 이와 유사하게 전북지방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Cha(1980)의 조사에서는 노인의

보수적 경향에 대해 부정적 반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보수적”인 것은 본 연구에서 유연성 차원을 이루는 5개 항목에 포함된다. Yoo 등(1991)도 간호대학생들의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태도에서 가장 부정적인 점수를 나타낸 것은 “노인들은 자신의 오래된 습관을 바꾸지 못한다”, “노인들은 새로 나오는 생활용품보다 옛날부터 쓰던 물건을 계속 쓰려고 한다”로 보고하였는데 이들 문항은 유연성차원에 관련되는 것이다.

한편, 관용성은 일반노인에서는 유일하게 긍정 성향의 평가를 받았으나 치매노인에서는 부정적 평가를 받아 두 집단간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는데, 관용성은 일반노인과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간의 상관분석에서도 유일하게 유의하지 않았던 차원이었다. 학생들의 이러한 평가는 노인들이 보여주는 관용성이라는 속성은 치매노인이 일반노인에 비해 크게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어 활력성과 유연성에 비해 관용성의 속성이 개인의 인지능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는 속성이라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종교는 일반노인의 관용성 평가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종교가 없는 학생들이 종교가 있는 학생보다 약간 더 긍정적 방향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종교의 종류와 종교성의 깊이의 관점에서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과 생활한 경험 유무에 따라 학생들의 노인과 치매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세 가지 차원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Kim 등(2004)의 간호학 전공 학부생들의 연구에서는 노인과 생활한 경험이 있는 학생집단에서 노인들의 활력성과 관용성 평가 점수가 노인과 생활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Cha(1980)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노인과 생활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부정적 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Kim(1981)은 노인과 생활한 경험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하였다. 함께 사는 노인과 친밀하게 지내는 집단과 평소 노인과 의사소통이 빈번했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상대집단보다 노인에 대한 활력성과 관용성에 더 높게 평가한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과 단순한 생활경험의 유무보다는 긍정적인 체험과 관련된 경험의 질이 노인들에 대한 태도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과의 의사소통 빈도는 Kim 등(2004)의 연구에

서도 노인들의 활력성과 관용성 평가에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Kahana 등(1996)이 분석한 다중회귀모형에는 응답한 요양원 직원들의 일반적 특성 외에 부모, 조부모와의 접촉빈도와 친밀성 등이 포함되었는데, 요양원 직원들의 직업관련 노인 접촉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조부모와의 접촉빈도가 건강한 노인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노인이나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활력성과 유연성 차원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관심이 적거나 없는 집단보다 어느 정도 있거나 매우 많은 집단에서 부정적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노인의 관용성의 평가에서는 활력성과 유연성 평가와 같은 성향이었으나 유의수준 10%에서 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하였고 일반노인에 대한 태도에서는 학생들의 노인이나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학생들의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일반노인의 활력성, 관용성, 유연성 평가에 덜 부정적이거나 더 긍정적 성향을 보고한 Kim 등(2004)의 연구 및 노인과 접촉이 많은 학생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나타낸 Cha(1980)의 연구와 상반된다. Kim 등(2004)의 연구는 간호대학생 전체 학년을 포함함으로써 실습을 통해 습득한 치매노인과의 직접경험이 포함되었으나, 본 연구에 응답한 학생들은 대학 2년 과정을 마친 후로서, 대부분 치매노인과의 직접경험이 없는 상태였다. 실제 본 연구대상자중 조사당시나 과거에 노인과 함께 생활한 경험이 있는 학생 62명 중 10명(16%)만이 치매노인과 생활경험이 있었다. 치매노인과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노인과 노인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개는 대중매체에서 소개되는 노인의 모습에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된다고 보는데, 특히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치매노인의 모습은 지속적인 기능감퇴를 경험하는 질병 특성상 부정적 측면이 많이 부각되기 때문에 오히려 노인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이러한 정보를 접하는 학생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Kim과 Won(1999)의 노인들에 대해 갖는 인식에 대한 신문광고의 부정적 모습의 영향을 보고한 연구에서 뒷받침된다.

성장지역은 어느 비교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농촌지역 출신 학생들이 일반노인들의 관용성과 유연성을 약간 더 높게 평가하여 Kim 등(2004)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한

편, 본 연구대상자 중에서는 농촌지역에서 주로 성장한 학생이 7.6%에 불과하여 중소도시 출신 학생들과 같은 집단으로 묶여짐으로서 농촌지역과 중소도시의 특성이 두드러지지 못했을 수도 있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평가점수가 가장 낮았던 유연성은 분석한 학생들의 특성 중에서 노인이나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도에서만 치매노인의 이미지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을 뿐, 일반노인의 이미지 평가에는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Kim 등(2004)의 연구에서는 노인이나 노인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만이 일반 노인들의 유연성에 대한 평가에 차이를 나타냈다.

한편, 치매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의학계에 만연한 것으로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총체적이면서도 사려 깊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인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Benbow & Reynolds, 2000).

Kosberg(1983)는 노인들과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노인인구에 대한 적절한 태도를 갖추고 있도록 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으로 정규교육, 보수교육, 직원평가를 제시하였다. 실제로 과거의 경험적 연구에서 간호학생들에게 노인간호 이론과 실습경험을 제공한 후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향상되었음이 보고된 바 있다(Fox & Wold, 1996; Greenhill & Baker, 1986; Sheffler, 1995).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와 같은 도구를 적용한 Kim(2006)의 경험적 연구에서도 학생들에게 치매노인과 뇌졸중을 경험한 노인들과의 실습경험을 지역사회 주간보호센터를 통해 제공했을 때 실습 종료 후 단기간에 나타난 학생들의 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는데, 특히 관용성에서 실습대상자의 유형별 차이를 보였다. 치매센터에서의 1주일간의 실습 직후 치매노인들에 대한 관용성 평가가 향상되어 일반노인과 치매노인 간의 관용성 평가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진 반면, 뇌졸중을 경험한 노인들과의 실습경험을 한 학생들에게서는 치매노인의 관용성 평가에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치매노인들에 대한 태도 향상을 위해서는 치매노인과의 직접적인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교과과정에 노인간호학 이론 교과목과 실습이 3-4학년에 개설되어 있어 조사당시에 이수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본 조사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태도가 과목이수 후 어느 정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간호학실습 현장에서 노인을 간호하는 교육경험

을 하게 되는 시점이므로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노인대상자와 긍정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 실습을 시작하는 시점에 있는 3학년 학생들의 노인과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였고 각 노인집단의 태도에 관련되는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자가응답형 설문지를 1학기 첫 주에 3학년 학생들에게 연구동의를 받은 후 배부하여 120명(99.2%)의 자료를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aired t-test, ANOVA, Scheffé test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중립적인 성향을 보인 일반노인의 관용성차원만 제외하고는 일반노인과 치매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모두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유연성은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활력성, 관용성, 유연성의 세 차원 모두에서 일반노인에 비해 치매노인을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노인들과의 친밀성과 의사소통 정도에 따라 일반노인의 활력성과 관용성 평가에 차이가 있었으며 관용성 평가에는 종교유무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치매노인의 경우 활력성과 유연성 평가에 있어 노인이나 노인문제에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 학생들의 평가가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간호학 전공 학생들이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전체 교육과정을 통한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학생들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특성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지지방안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치매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수정하기 위해 치매노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이론과 실무 경험이 교육과정에 통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References

- Åström, S., Nilsson, M., Norberg, A., Sandman, P., & Winblad, B. (1991). Staff burnout in dementia care-relations to empathy and attitudes. *Int J Nurs Stud*, 28(1), 65-75.
- Benbow, S. M., & Reynolds, D. (2000). Challenging the stigma of Alzheimer's disease. *Hosp Med*, 61(3), 174-177.
- Brody, H., Draper, B., & Low, L. (2003).

- Nursing home staff attitudes towards residents with dementia: Strain and satisfaction with work. *J Adv Nurs*, 44(6), 583-590.
- Byun, Y. C., Han, Y. J., Lee, S. H., Park, C. H., Woo, J. I., & Lee, J. H. (1997). *Study of developing mapping for dementia care*.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 Cha, Y. E. (1980). Attitudes toward old people among college students. *J Jeonju University*, 9, 239-262.
- Fox, S. D., & Wold, J. E. (1996). Baccalaureate student gerontological nursing experiences: Raising consciousness levels and affecting attitudes. *J Nur Educ*, 35(8), 348-355.
- Greenhill, E. D., & Baker, M. F. (1986). The effects of a well older adult clinical experience on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J Nur Educ*, 25(4), 145-147.
- Gomez, G. E., Young, E. A., & Gomez, E. A. (1991). Attitude toward the elderly, fear of death, and work preference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Gerontol Geriatr Educ*, 11(4), 45-56.
- Jolley, D. J., & Benbow, S. M. (2000). VI. Stigma and Alzheimer's disease: Causes, consequences and a constructive approach. *Int J Clin Pract*, 54(2), 117-119.
- Kahana, E., Kinney, J. M., Kercher, K., Kahana, B., Tinsley, V. V., King, C., Stuckey, J. C., & Ishler, K. J. (1996). Predictors of attitudes toward three target groups of elderly persons: The well, the physically ill, and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J Aging Health*, 8(1), 27-53.
- Kane, M. N. (2002). Awareness of ageism, motivation, and countertransference in the care of elders with Alzheimer's disease. *Am J Alzheimer's Dis and Other Dementia*, 17(2), 101-109.
- Kim, E. I. (1981). *Study of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mong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J. H. (2006). Effects of gerontological nursing practicum on attitudes toward elders with dementia and general elders among Korea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36(4), 645-651.
- Kim, J. H., Son, G., & Algase, D. (2004).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mong nursing students in Korea. *J Korean Acad Nurs*, 34(8), 1499-1508.
- Kim, M. H., & Won, Y. H. (1999). Analysis on image of the elderly in Newspaper advertisements: The establishments for new image of the elderly. *J Korea Gerontol Soc*, 19(2), 193-214.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6). *Statistical reports of the aged in Korea*. Seoul: Author.
- Kosberg, J. I. (1983). The importance of attitudes on the interaction between health care providers and geriatric populations. *Interdiscip Top Gerontol*, 17, 132-143.
- Robb, S. S. (1979). Attitudes and intentions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toward the elderly. *Nurs Res*, 28(1), 43-50.
- Seo, B. S., & Kim, S. H. (1999). A study on the elderly image of university students. *J Korea Gerontol Soc*, 19(2), 97-111.
- Sheffler, S. J. (1995). Do clinical experiences affect nursing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 Nur Educ*, 34(7), 312-316.
- Takeda, K., Hosoe, Y., Sodei, T., Cheng, S., & Sue, P. S. (1991). The attitude and the sense of responsi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toward the aged: Cross cultural study in Japan, Taiwan and Korea (Part 3). *J Home Economics of Japan*, 42(5), 405-413.
-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1999). *The standardized Korean language dictionary*. Seoul: Dusandongah.
- Wingard, J. A., Heath, R., & Himelstein, S. A. (1982). The effects of contextual variations

on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 Gerontol*, 37(4), 475-482.

Yoo, J. S., Kim, C. J., Lee, W. H., Hur, H. K., Kim, K. S., & Lim, S. M. (1991). The effectiveness of the gerontological nursing education on the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aging process. *Yonsei Nursing*, 14, 11-30.

- Abstract -

Attitudes Toward General Elders and Elders with Dementia Among Baccalaureate Junior Nursing Students

*Kim, Jung Hee**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attitudes toward general elders and elders with dementia among nursing students before beginning the clinical practicum. In addition, students' characteristics differentiating the attitudes were examined. **Methods:** Attitudes were measured with questionnaires developed for Asian culture at the beginning week of the first semester of the junior year in two baccalaureate programs.

Responses from 120 out of 121 students were analyzed using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aired t-test, ANOVA, and Scheffé test. **Results:** Students held negative attitudes toward both types of elders except for generosity dimension toward general elders showing a neutral attitude. Elders with dementia were evaluated more negatively than general elders in all the dimensions of vitality, generosity and flexibility. Vitality and generosity toward general elder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intimacy and the degree of communication with elders. Generosity toward general elders was also different according to students' religious beliefs. Students with interest in elders/issues showed more negative attitudes of vitality and flexibility toward elders with dementia. **Conclusions:** Students in general had negative attitudes toward elders and more negative attitudes toward elders with dementia. We need to put more efforts into the entire nursing curriculum in order to improve attitudes toward elders with particular concern over attitudes toward elders with dementia.

Key words : Attitude, Aged, Dementia, Nursing Students

*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